

합정동 군부대 이전 촉구 결의안

(이봉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15
----------	-------

발의연월일 : 2015. 2. 23.

발 의 자 : 이봉수, 차재홍, 한일용, 김영미,
이동주, 서종수, 강희향, 김윤정,
김효식, 문정애, 백남환, 송병길,
신종갑, 유호렬, 이필레, 이학래,
전승학, 허정행 의원 (18명)

1. 주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는 「합정동 군부대 이전 촉구 결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마포는 사통팔달의 편리한 교통망을 갖추었고 현대화된 빌딩이 들어서며 도심업무지구로 성장하고 있으며 서울월드컵경기장, 디지털미디어시티, 홍대가 위치해 있음은 물론 서울화력발전소 지상 부지에 문화창작소가 들어설 예정으로 수도권의 관문도시이자 국제도시로 변모하고 있음.

나. 그러나 이러한 도시 경쟁력과 무한한 성장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합정동 한강변에 오래전부터 흉물스럽게 들어선 군부대는 현재 그 기능을 상실한 채 토지만 점유하며 주변 경관을 해치고 오랫동안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다. 따라서, 합정동 군부대를 하루빨리 이전시켜 주민의 품으로 돌려주고 지역의 균형 발전을 추구함은 물론 마포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합정동 군부대 이전을 국회 의장, 국방부장관, 육군참모총장, 수도방위사령관, 서울시장에 촉구하고자 하는 것임.

3. 이송처

청와대, 국민권익위원회, 대한민국 국회, 국방부, 육군본부(육군참모총장, 수도방위사령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 자치구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

합정동 군부대 이전 촉구 결의안

서울의 자치구 중 한강을 가장 길게 접하고 있는 마포는 풍경이 매우 수려한 곳으로, 예부터 많은 문인과 명사들이 저택이나 별장과 누정을 짓고 자연을 즐겼으며 구한말에는 개항장으로서 관문 역할을 하였던 유서 깊은 도시이다.

현재는 사통팔달의 편리한 교통망을 갖추고 현대화된 빌딩 숲과 고층아파트가 어우러져 도심업무지구로 성장하고 있으며, 서울월드컵경기장과 디지털미디어시티(DMC), 홍대 등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며 수도권의 관문도시이자 국제도시로 변모하고 있다.

특히, 서울 시민에게 전기와 열공급을 하던 서울화력발전소가 지하화 되고 향후 지상 부지에 문화창작발전소 등 문화시설이 들어서면 주변의 홍대 문화권과 연계하는 문화관광 클러스터가 조성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나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훌륭한 도시 경쟁력과 무한한 성장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합정동 한강변에 오래전부터 흉물스럽게 들어선 군부대는 주변 경관을 해치며 오랫동안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합정동 군부대는 당초 서울 서남방 및 한강축선 대공방어를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나 현재는 기능을 상실한 채 단지 토지만을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유명무실한 군부대가 버티고 있는 한 아름다운 한강을 끼고 있는 합정동 일대는 개발을 하지 못한 채 낙후되어 이류 도시로 전락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도심 한가운데 110여년간 군사기지로 사용되던 용산의 미군기지도 평택으로 이전이 확정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미군이 떠난 자리에는 녹색의 푸른 공원을 조성할 계획에 있다.

따라서, 본래 부대 설치 목적을 상실한 조그마한 면적에 불과한 합정동 군부대도 하루속히 이전하여 주민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는 지역의 균형 발전을 추구하고 마포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군부대를 조속히 이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오랜 세월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경관을 해치는 합정동 군부대를 즉각 이전하라
1. 서울특별시는 현 부대가 이전할 수 있도록 대체 부지 제공에 적극 협조하라
1. 고도 제한 완화 등 주민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라

2015. 2.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일동